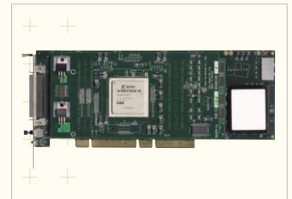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지상파 DMB용 핵심 칩 2종 개발

통신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용 반도체 칩 제작 팹리스 전문업체인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 <http://www.inctech.co.kr>)는 국내 최초로 지상파 DMB용 핵심 반도체인 RF IC(모델명: StarRFT200)와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모델명: StarDMB1000)를 동시 개발했다. 이 제품은 ADC, DSP Block, Hardwired Modem Block, LCD 컨트롤러 등을 내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합한 HW/SW Co-architecture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주파수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후단의 AV프로세서를 위하여 RDI, 호스트인터페이스, serial peripheral interface, I2C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포맷을 지원한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박창일 사장은 "최근 디지털 미디어 컨버전스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반도체 칩 또한 융합이 불가피하다"며 "그 동안 개발된 지상파 DMB용 칩은 RF IC와 베이스밴드 개발 업체가 각각 나뉘어 있었지만,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핵심 기술을 동시에 갖추므로서 기술 융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DMB 관련 칩의 양산에 힘입어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주관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다이나릿시스템, 천만 게이트 지원 로직시뮬레이션 가속기 개발

하드웨어 가속기 개발업체인 (주)다이나릿시스템(대표 김종석, <http://www.dynalith.com>)은 Xilinx사의 Virtex-4시리즈 FPGA를 채용하여 단일 보드에서 1천만게이트에서 최대 2천만게이트까지 지원하는 신제품 iPROVE-X4를 개발 완료하고 Virtex-4가 양산되는 시점에 맞추어 금년 내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iPROVE-X4 제품은 국내의 SoC 설계 및 검증에 적용되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설립된 다이나릿시스템은 PCI형태의 시뮬레이터 가속기인 iPROVE, 교육용 iTUTOR, DSP와 ARM 코어 소자 시뮬레이션용 PhysicModeler 등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이다.



시놉시스, 차세대 피지컬(Physical) 설계솔루션 '갤럭시 IC 컴파일러' 발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Synopsys, Inc., <http://www.synopsys.com>)는 차세대 피지컬 디자인솔루션인 갤럭시 IC 컴파일러를 발표했다. IC 컴파일러는 피지컬 합성(Physical synthesis), 클락 트리 합성(clock tree synthesis), 라우팅(routing), 생산량 최적화(yield optimization), 사인오프 상관관계(sign-off correlation) 등 여러 설계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초의 피지컬 디자인 솔루션이다. 기존의 설계 솔루션들은 피지컬 디자인 단계들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있던 하지만 배치, 클락 트리 합성, 라우팅 등의 단계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놉시스의 Aart de Geus 회장은 "IC컴파일러의 혁신은 우리의 차세대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설계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고객사의 제품의 질, 결과도출 소요시간, 비용 면에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구현한다."고 말했다. IC컴파일러는 2005년 6월부터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1년간 풀 라이선스 하는 경우 미국 표준가격은 미화 73,000달러이며, 장기 라이선스의 경우나 시놉시스의 기존 피지컬 임플리멘테이션 테크놀로지 사용자들이 포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가격 보다 저렴한 연간 라이선스 요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주)디스텍컴, (주)방림디지털로 사명 변경

LCD 모듈 생산업체인 (주)디스텍컴이 2005년 4월 1일부로 (주)방림디지털(대표 박주찬, <http://www.prdigital.co.kr>)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주찬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 변경은 지난 2004년 (주)방림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사업의 다양화와 기업의 이미지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제2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신사업의 확장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주)위즈넷, 사무실 이전

인터넷 통신용 반도체 설계업체인 위즈넷(대표 이윤봉, <http://www.wiznet.co.kr>)가 지난 4월 17일 분당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463-8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첨단기술연구센터 306호, 전화 : 031-789-7900, 팩스 : 031-789-7908